

화목 난방기 사용 안전수칙

화목 관리 수칙

- ① 원목(통나무)은 빠른 건조를 위해 1/4이나 1/6 크기로 쪼갬다
- ② 공기가 잘 통하도록 교차로 쌓는다.
- 주택에서 거리를 두고(화재안전), 받침대를 두어 지면으로부터 띄운다.
- ③ 비나 눈을 맞지 않도록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는다.
- 덮개와 화목간 공간이 있어야 한다. 직접 닿아 덮지 않도록 한다.
- ④ 충분한 시간동안 건조해야 한다. 침엽수는 6개월 이상, 활엽수는 12개월 이상 건조해야 한다.

화목난방기 관리 수칙

- ① 사용자는 난방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유지 보수해야 한다.
- ② 난방기 작동 중에는 연료투입구, 연통 및 배관부의 기밀성과 공기투입기(팬)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.
- ③ 난방기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여름철에는 연소실을 청소하여 습기가 응축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.



화목난방기의 화재 발생 주요 원인

- ① **(보일러 과열)** 온도조절 안전장치가 없는 보일러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연료 투입시 과열에 의한 복사열에 의해 주변 가연물에 착화
- ② **(가연물 근접 불티)** 연료투입구, 연통 또는 굴뚝 끝에서 불티가 비산되어 주변 땔나무, 지붕 등의 가연물에 착화되거나 타고 남은 재가 방치된 상태에서 바람이 불 경우 불티가 날려 주변 가연물에 착화
- ③ **(연통 과열)** 공기량 부족, 젖은나무 또는 합판 사용 시 불완전 연소되어 그을음(타르)이 과다 발생하여 연통 내부에 쌓인 타르에 불이 붙으면 연통이 1,000℃ 이상 과열되어 주변 가연물에 착화
- ④ **(기타 원인)** 보일러의 각종 장치 전기배선 합선 또는 기계적 고장 등에 의한 요인으로 착화

안전조치 및 주의사항

- ① 가연물과 보일러는 2m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한다.
- ②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를 설치한다.
- ③ 투입구 개폐 시 화상에 주의한다.
- ④ 연료를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는다.
- ⑤ 나무연료 투입 후 투입구를 꼭 닫아 준다.
- ⑥ 지정된 연료만 사용한다(젖은나무, 합판, 화학처리된 목재는 그을음의 주원인으로 사용 금지)
- ⑦ 연통 청소는 수시로 해야 하며 막대기로 연통을 가볍게 두드려 타르를 털어낸 후 제거한다.

※ 「폐기물관리법」 제8조에 따른 폐가구, 방부목재, 합판, 파티클보드, 섬유판 등 화학물질 또는 이물질로 오염된 폐기물은 절대 소각 금지

산불예방, 숲을 키우는 가장 쉬운 실천입니다.